

“물건을 살때에는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류 페트병에 든 제품은 사지 않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들어있는 것만 사고, 마시고 난 우유 종이팩은 씻어 말려 모으고, 신문지와 광고지도 따로 모아 뒷면이 하얀 광고지는 뷰어 밑에서 다른 보살들과 공부할때 연습장으로



◇5일은 환경의 날. 상계동 선지혜보살은 수환·유정 두지녀와 7정의 재활용품을 함께 분리하는 환경가족이다.

우리는 환경가족

별명 '쓰레기 감람꾼'

대명화 보살

아이들도 분리 수거

선지혜 보살

사용하지요" 부천 중동신도시 반달마을의 대명화보살(60세).
 쓰레기 줄이는 일이 환경을 살리고 불법을 행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실천해 온 보살은 동네에서 소문난 '쓰레기 감람꾼'으로 통한다.
 그런 보살의 영향으로 남편 또한 부엌에서 사용한 물을 모았다가 화장실에 사용하는 등 불한 방을 아끼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환경을 살리는 노력이라 굳게 믿으며 남다른 실천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환경가족이다.
 시장을 볼때도 장바구니를 꼭 챙기는 대명화보살은 "10년전부터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요즘은 석왕사 생활에서 무농약농산물을 사서 자연식을 주로 이용합니다"라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철학'을 피력했다.
 환경문제를 가정에서부터의 조용한 혁명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불자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작은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운동 실천행의 하나가 바로 가정의 쓰레기 분

수집품에 신문지는 배다리로 각자가 사용한 것들은 스스로 분리해요"라고 말하는 황수환(상경국 1)군은 엄마가 모이는 현역 신문광고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유정아와 함께 종이집기도 한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 생활속에서 실천 확산

리수거다.
 상계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지혜보살(37세)도 두지녀와 함께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이용 등 가정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자연스레 실천하고 있는 환경가족.
 "다시 쓴 캔과 야쿠르트 병은 세탁실

아이들과 함께 종이집기를 하며 왜 종이를 함부로 버리면 안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어요"라고 엄마 선지혜보살은 말하기도.
 이처럼 부처님의 생명존중과 연기의 가르침을 환경보호로 실천하는 불자가족의 환경가족화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나와 이웃과 그리고 자연은 하나

지난번에 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뇌는 더이상 분화할 수 없을 만큼 성숙되어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다. 한번 입은 손상부위의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

손상을 입으면 회로에러의 감정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결과들은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론화되어 있었다. 지난번 소개한 뇌기능에 관한 칼럼을 비롯 외산한가 소개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성인의 뇌세포도 자란다는 실험의 결과이다. 외산에 전해진 사실의 내용은 이렇다.

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보도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동물실험에서 암컷 카나리아에 남성호르몬을 주입하면 암컷이 울게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카나리아는 숫컷만 노래한다) 그런 실험을 했더니 남성 호르몬이 주입된 암컷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을



뇌세포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자가증식 가능

사람의 뇌세포는 인체의 다른 세포와는 달리 한번 성장이 끝나면 더이상 생겨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자가증식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실험의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의 코넬대학 교수인 스티븐 골드먼 박사의 연구결과인데 그는 어른의 뇌세포를 분리시켜 이를 실험실에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이 결과는 다 자란 카나리아의 뇌세포가 일정한 조건(남성호르몬을 주사)아래에서 뇌세포의 성장이 계속한다는 증거를 얻게 된 셈이다. 말하자면 뇌의 세포가운데 일종의 선구세포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었고 인간의 뇌에서도 어떤 부위의 뇌세포가 선구세포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규명된다면 뇌세포 재생을 위한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나의 임상적인 경험으로 볼때도 아주 난폭한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환자를 선택적으로 뇌의 전두엽을 잘라낸 수술을 받은 환자를 몇사례 분석이 있다. 전두엽이 절제된 환자는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자비의 전화 상담원의 상담활동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했다.
 올 3월현재까지 등록된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상담원의 56.2%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카운셀러 대학에 입학했다고 답했으며 39.1%가 월평균 2회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후의 상담성공에 대해 43%가 대체로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자비의 전화 5년 기념 상담원 대상 설문조사

사회 봉사 '56%' 일에 만족 '43%'

28.4%가 자비의 전화 이외에 타 상담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다수의 상담원들이 실제상담 사례교육, 전화상담이론교육 등의 보충을 지적한것으로 설문분석결과가 드러났다.

장애인 수계법회 봉행 지난 28일 불교간병인회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포교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계법회를 숙리산 법주사에서 실시했다.
 국립재활법당 직원복지회의 주최로 봉행된 이번 수계법회에는 재활원생, 재활병원원자, 직원복지회와 불교간병인회 자원봉사자등 60여명이 월성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만화

법구경

이진이의 장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이향원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도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췌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重要내용

- 1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실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 2 佛教繪畫: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3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4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5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들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 6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 7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 (02)333-0051 FAX: (02)338-7781